

전북 벤처투자플랫폼 ‘J-피움’ 본격 가동

1036억원 지역성장펀드 연계 투자 실행력 강화... 유망기업 발굴·후속 투자까지 전주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 대표 벤처투자플랫폼 ‘J-피움(J-Peum)’을 중심으로 지역 유망기업과 투자기관 간 실질적인 투자 연계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0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금융권, 엔지니어링, 대학, 투자기관 및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X전북 벤처투자플랫폼 J-피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36억원 규모의 전북

지역성장펀드 출범과 J-피움을 연계해 지역의 투자재원과 유망기업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 및 정책 발표에 이어 2부 J-피움 유망기업 기업설명회(IR)와 1대1 투자 및 업무로 진행됐다.

특히 2부에서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40여개사와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VC) 등 50여개 투자사가 참여해 기업 IR과 1대1 투자상담을 진행하며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J-피움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기관과 연계해 전북의 투자 풀과 투자 검토 기업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축한 전북 대표 벤처투자플랫폼이다.

단발성 IR 행사에 그치지 않고 유망기업 발굴부터 IR 역량 강화, 투자자 매칭, 투자유치, 후속 성장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투자자 간 지속적인 투자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투자계획 등을 투자사와 공유하고 기업별 투자 수요에 맞

춘 1대1 밀착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 도 참여기업과 투자자 간 후속 미팅과 투자 검토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날 함께 결성된 1,036억원 규모의 전북 지역성장펀드를 비롯한 지역 투자재원과 국내 주요 VC·액셀러레이터(AC)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J-피움에서 발굴된 유망기업이 실제 투자와 후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북형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북전주농협과 부귀농협은 지난 19일 북전주농협 대회의실에서 ‘도농상생 1도3농 운동’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도농상생으로 함께 갑시다”

북전주농협·부귀농협, ‘1도3농 운동’ 업무협약 체결

북전주농협과 부귀농협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과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은 지난 19일 북전주농협 대회의실에서 ‘도농상생 1도3농 운동’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농상생 1도3농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운동이다.

다산 정약용의 ‘3농정책’의 뜻을 이어받아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의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

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농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연계하고,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도농 간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부귀농협이 매년 실시하는 공동방제에 올해부터 북전주농협 청년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주광역시드론방제단’이 참여했다.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통해 방제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촌 인력난 해소, 농산물 생산량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전북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동반 상승

8월 셋째 주 매매가격 0.06%·전세가격 0.05% 상승... 전국 평균 웃돌며 상승세 이어가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8월 셋째 주에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2026년 8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17일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15%, 서울은 0.22% 올랐다. 지방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북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7개 도 가운데 충북(0.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북은 지난주 0.07% 상승에서 이번 주 0.06%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7개 도 가운데 경남은 0.02%, 충남은 -0.05%, 경북은 -0.03%, 강원은 -0.02%, 제주 -0.07%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상승 지역이 지난주 113개에서 115개로 늘었고, 보합 지역도 8개에서 9개로 증가했다. 반면 하락 지역은 61개에서 58개로 감소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8월 17일 기준 전북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0%였으며 수도권 0.17%, 서울 0.19%, 지방 0.03%를 기록했다.

전북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7개 도 가운데 경남(0.07%), 충북(0.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7개 도에서는 경남이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충북 0.06%, 전남 0.05%, 충남 0.01% 순으로 상승했다. 강원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고 경북은 -0.01%, 제주는 -0.05%로 하락했다.

전북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0.04% 상

승에서 이번 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0.45%, 중랑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44% 상승하는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성남 중원구와 수원 권선구, 광명시가 각각 0.47~0.50%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세부자료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동전주우체국-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맞손’

동전주우체국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전주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동전주우체국은 19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우정서비스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정사업본부의 대표 공익형 보험인 ‘대한민국 임마보험’을 매개로 전주시 거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임마보험’은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과 태아 희귀질환 진단 등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국



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임산부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임마보험을 안내하고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산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공동 홍보를 진행하고, 협회 방문 고객에게 대한민국 임마보험과 우정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전북외고서 JB인문학 강좌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전북의 국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강좌를 마련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에서 ‘2026 JB인문학 강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는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 무엇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가’를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지식과 정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가치와 역량이 무엇인



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어냈다.

특히 정해진 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깊이 생각하는 힘, 타인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태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강좌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고민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북 식품 창업기업 투자유치 데모데이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식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데모데이를 열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9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도내 식품분야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IR 빌드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식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GS리테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씨엔티테크 등 7개 전문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참여기업의 기업설명회(IR) 발표를 듣고 전문적인 피드백과 사업화 조언을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식품 창업기업 7개사는 각 기업의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제품·기술의 경쟁력, 시장 확장 가능성, 성장 전략 등을 투자사에 소개했다. /오상근 기자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져 투자사와 기업이 시장 경쟁력과 사업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데모데이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총 1억700만원 규모의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별 수요에 따라 최소기능제품(MVP) 제작과 마케팅, 시장성 검증, 공정개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